



티끌의 가치

| 김민선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아버지<목민심서를 자주 소리내어 읽는 50대 초반. 말이 없고 묵묵함. 공직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맡은 바 일에 충실하려 하지만 이웃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원성도 듣는다.>, **아들**<고등학생. 요즘 시대에 목민심서와 같은 옛날 책을 읽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아버지가 굳어 부스럼 만든다 생각해 아버지에게 반항한다. 그러다 시간이 전개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렵듯이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아버지와 아들 양쪽의 입장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 **영식이 할아버지**<분식집 주인. 아버지에게 단속을 당하지만 아버지와 나쁜 사이는 아니다.>

시놉시스

아버지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이다. 불법 노점상이기만 하다면 지인이거나 이웃이라도 예외없이 단속해 이웃들의 원성을 사고, 아들은 평소 그런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단속을 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아들은 떡볶이 장사를 하는 그 분식집 주인 할아버지가 손자와 단들이 살며 노점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노점상이 길목에 있어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인 데다, 가스 배선도 노후화되어 있어 화재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단속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핑계로만 들린다.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아버지가 뺏는다고 생각한 아들은 그 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께 크게 반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분식집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별안간 시민들 사이에서 불이 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가보니 노후화된 전선이 원인으로 그 노점상에서 그 노점상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재현장에서 분식집 주인 할아버지를 구해내 밖으로 나온다. 불평하거나 생색내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뭔가를 느낀다.

이후 아버지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범 공무원상을 받는다. 시상식장에 참석해 박수를 치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1 집 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펴놓고 글을 읽고 있다.)

아버지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목민관은...

(방문을 열고 아들이 등장.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쿵쿵거리며 들어온다)

아들 : 또야. 아빠는 때가 어느 땐데 그걸 읽어요?

아버지 : 어허. 동서고금에 통하는 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아버지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내려감. 아들은 지겹다는 양 귀를 막는다.

아들 : 저 말만 몇 번이야 진짜.

불평과 함께 방을 나가는 아들.

#2

장면 전환. 나레이션 (아들 목소리) : 우리 아빠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셨다. 엄마는 항상 '너희 아빠만큼 바른 사람이 없다' 며 아빠를 칭찬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남들은 하지 않는 일을 왜 혼자 나서서 하시는 걸까?

집 대문 앞. 아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옆집 사람이 지나간다. 아들 옆집 사람에게 인사한다.

아들 : (이웃 1과 눈을 마주치려 들며 허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람 : (대답없이 지나간다)

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웃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원인을 알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인상을 찡그리고 대문을 열어 큰 발걸음으로 들어간다. 마루를 빠르게 가로질러 안방 문을 열고 아버지께 대뜸 묻는다.

아들 : 아빠 또 옆집 아저씨한테 벌금 물렸죠?

책을 읽던 아버지, 아들 쪽을 응시하며 침착히 대꾸한다.

아버지 : 옆집이라고 봐주고 그러는 게 아냐. 그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다.

아들 : 어차피 아빠 빼고는 다 눈감아주잖아요. 좀 넘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아빠 때문에 우리 집 동네에서 왕따예요, 왕따.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책을 본다. 아들은 짜증 가득한 한숨을 쉬며 돌아선다.

나레이션 (아들 목소리) : 가끔 보면 아빠는 정이 없는 사람 같다. 나라에 널린 게 포장마차인데, 그것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옆집 이든 뒷집이든 다 잡아내신다. 그거 때문에 우리만 동네에서 찬밥 신세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나?

#3 포장마차 길목

아들, 친구들과 하교하는 길. 친구들 1, 2, 3과 길을 걸어간다. 한쪽 길목에 자주 가던 떡볶이 포장마차 집이 보인다.

친구 1 : 야, 떡볶이 먹고 가자.

군말없이 따라나서는 친구들. 아들은 잠깐 망설이는 눈길로 포장마차를 보다가 금세 따라나선다.

포장마차 안에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서 있다. 그 앞에는 순대, 떡볶이, 오뎅 등 맛있는 분식들이 따끈따끈한 연기를 내고 있다.

친구 1 : 떡볶이 4인분이랑 순대 하나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은 듯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세 요리를 내온다.

할아버지 : 학교 끝나고 오는 길이니? 맛있게 먹어라.

학생 1, 2, 3, 아들 : 감사합니다.

학생들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다. 곧이어 천막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 무심코 고개를 올려 누군지 확인했던 아들이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린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선 아버지, 아들과 잠깐 눈이 마주쳤으나 이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버지 : (안타까운 목소리로) : 어르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허가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 (가래 끓는 목소리)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봐줘. 나도 손자 용돈은 벌어야지 않겠나.

아버지 : 그래도 위험해요. 이렇게 길목 한복판에서 장사하시면 차가 지나다니다가 여길 칠 수도 있고, 지금 쓰시는 가스도 배관 이 오래된 거라 잘못하면 불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 (말끝을 흐리며) 알지, 그거는 나도 아는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 : (안쓰러운 듯 할아버지를 응시하며) 과태료 8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 힘없이 꼬깃꼬깃한 8만원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내민다. 아버지도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인다.

아버지 : 얼른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쉬어야 낫죠.

떡볶이를 먹다 말고 눈치만 살피는 학생 1, 2, 3. 아들은 아예 못 본 척하려고 시선을 피한다. 아버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타이른다.

아버지 : 너희들도 그만 가라.

학생 1, 2, 3과 아들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가게를 나온다. 학생 1이 짜증을 낸다.

학생 1 : 아, 돈 아깝게. 존나 이상한 아저씨 만나서 이게 뭐야.

학생 2 : 우리 방금 오천원 어치 먹었는데 팔만원 빼가는 거 실화냐?

학생 3 : 대박. 존나 불쌍해.

학생 1 : 근데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무 말도 않고 학생들 옆에서 견고만 있는 아들. 긴가민가하던 학생 1이 아들에게 묻는다.

학생 1 : 야, 저 사람 너네 아빠 아니냐?

아들, 입을 다물고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

#4 집

그 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놓고 따진다.

아들 : (반항적인 목소리로) : 거기 웬만한 분식집보다 싸고 맛있다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없이 손자랑 둘만 사시는 거 알아요?

아버지, 말없이 밥만 먹는다.

아들 :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아버지 :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 포장마차는 안전장치도 없고 보험도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일하시다가 만에 하나 다치시더라도 하면 더 큰일나는 거야.

아들 : 동네 사람들 다 몇십 년씩 잘만 하잖아요. 그냥 아빠만 유난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늦지. 그리고 아빠가 해야 할 일인데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디 있지.

더 뭔가를 말하려는 아버지. 아들은 식탁에서 껍하니 일어선다.

아들 : 됐어요, 또 조선 시대 책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들, 반항하듯 식탁에서 빠져나와 부엌 밖으로 나가버린다.

#5 시장 근처

시장 근처엔 허가받지 않는 노점상들이 죽 늘어서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들, 그 사이를 지나치다 어떤 노점상을 본다. 돛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팔던 불법 노점상 주인을 아버지가 단속하고 있다. 50대 여성, 아버지와 동년배로 보이는 노점상 주인이 아버지에겐 애걸하고 있다.

시민 1 : (애써 웃음을 띠며) 창현이 아빠, 불법이라니 말이 심하네. 고작 이만한 일에 이웃끼리 얼굴 붉혀야겠어?

아버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않는다. 노점상 주인, 아버지를 더 설득하려 든다.

시민 1 : 나 알잖아요? 나 고정된 직업 있어. 근데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트엘 못 나가겠더라구.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데 또 약값은 약값대로 들잖아?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검사검사 안 쓰는 물건 파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 이웃끼리 하는 바자회라고 하는거 이걸.

아버지 : 오전에도 봤는데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일회성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장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시장 앞이라서 지나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민원도 몇 건 들어왔어요.

시민 1, 표정이 굳어지지만 웃으려고 애쓴다.

시민 1 : 여보소 창현이 아버지, 내 아들놈도 창현이랑 동갑인데 창현이 얼굴을 봐서라도 헤아려 주소. 이거 짝간 한다고 내가 일

확천금을 손에 넣는 것도 아니잖아. 다신 안 할 테니까 저녁까지만, 저녁까지만 봐주면 안 되나?

아버지 : (더 단호하게) 오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 정리하시고 돌아가세요. 계속 그러시면 저도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민 1, 궁시령대며 돛자리를 정리한다. 멀찍이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의 귀에 시민 2와 시민 3의 목소리가 들린다.

시민 2 : 아유, 사람이 인정이 없어. 감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봐주지 않구.

시민 3 : 저럴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할 것이지. 하여튼 공무원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는 데 도가 텃다니까.

이외에도 시민 두서넛이 아버지와 노점상 주인을 보며 소곤대고 있다. 아들, 가방을 세게 쥐고 몸을 핵 돌려 다른 길로 지나간다.

#6 집

다른 길로 되돌아간 아들은 그 날 PC방에 들러 게임을 하다 느지막하게 집에 온다. 아들이 집에 들어서자 먼저 퇴근해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반긴다.

아버지 : 창현이 왔니.

아들,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속 들어가 버린다. 가족끼리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내내 말이 없다. 아들의 얼굴을 살피던 엄마도 한마디 한다.

어머니 :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었어?

아들 (통명스럽게) : 별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저녁을 먹은 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 사과를 입에 넣으며 아버지가 지나가듯이 말한다.

아버지 : 5층집 세준이 엄마 있잖아, 다리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어머니 : 그래?

아버지 : 응. 오늘 뵈니까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낸다. 낮에 아버지께 빌다시피 했던 시민 1이 세준이 엄마다. 단속한 사람 단속한 사람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버지 얼굴을 결눈질로 보고는 화를 꼭 눌러 참는 표정.

어머니 : 걱정이네. 안 그래도 마트 일 하느라 하루종일 서 계실 텐데.

아버지 : 뭐 다리에 좋은 거라도 갖다드려야 할까 봐.

아들 대화에 끼어든다.

아들 (반항적인 말투로) : 그렇게 불쌍하면 단속 안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아들을 본다.

아들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목소리를 키운다) : 사정이 있어서 그랬단 거 알면 안 하시면 되죠. 그 땐 가차없이 단속해놓고선 이제 와서 뭘 걱정해줘요?

아버지 : 걱정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일은 일이야. 내가 걱정된다 해서 일을 놓으면 안 되지.

아들 : 아빠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아들, 완전히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들 (분노에 차서) : 사람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융통성 없다고 막 그래요. 아빠가 막는다고 그 사람들 장사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막아도 막아도 또 나오고 아빠는 실컷 욕만 먹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는 다른 일 없어요? 남들 보기 쪽팔리다구요!

어머니 : 이창현, 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머니의 꾸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보고만 있다. 아들 계속해서 악을 쓴다.

아들 : 난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다고요! 내가 많은 걸 바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만 해달라는 건데, 아빠가 그러지를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나도 다 불편해지기만 하잖아요!

어머니 : 창현아!

아들, 뒤돌아 자기 방으로 빠르게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다. 침대에 폭 엎어져 이불을 파묻고 화면은 그대로 어두워진다.

#7 아들 방

아들, 다음 날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 잠결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오늘은 토요일이다. 아들 (혼잣말로) :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이네. 그대로 누워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린다. 잠고 있던 문을 열자 앞치마를 맨 어머니가 서 있다.

어머니 : 아들, 부엌으로 와서 엄마 좀 도와.

아들 : (불멘소리로) 쉬는 날엔 쉬게 해줘요.

어머니 : 너 먹을 아침밥 만드는 거야. 안 도와면 아침밥 없어.

아들, 머리를 벽벽 긁고 하품을 찌억 하면서 엄마 뒤를 따라 부엌으로 간다. 부엌 식탁 위에는 콩나물이 담긴 봉지가 놓여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부엌 개수대에 나란히 서서 콩나물을 씻는다. 물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물기 묻은 콩나물을 체에 담고 물기를 털어내려는 때 어머니가 심각하지 않은 투로 말을 건다.

어머니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 어제는 네가 잘못된 거야. 알지?

아들, 대답 대신 싱크대 물을 더 세게 튼다. 어머니가 다시 말한다.

어머니 (차근차근 말하려 들며) : 엄마가 항상 말하잖아. 너희 아빠만큼 바른 사람 없다고.

아들 (양금이 덜 가신 목소리) : 혼자만 바르면 누가 알아줘요.

어머니 : 엄마가 알아주지, 또 우리 아들이 알아주고, 또 사람이 한결같이 꾸준히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도 있어.

아들은 한참 동안 콩나물만 씻는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기색으로 뚝을 들이다 말한다.

아들 (뚝을 들인 뒤) : 전 잘 모르겠어요. 규칙 잘 지키면 좋기야 하죠. 그래도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손자랑 둘만 사는 할아버지도 단속하시던데, 그런 분들 단속하고 돈까지 내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 : 영식이 할아버지 얘기지? 안 그래도 너희 아빠가 고민 많이 하셨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봐드리고 싶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도 문의해 보셨다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

콩나물을 다 씻은 어머니가 허리를 편다.

어머니 : 그래도 아빠가 꾸준히 말한 덕분에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이 되셨대. 잘 됐지?

아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8 아들 방

그 날 저녁때까지 아들은 빈둥빈둥 보낸다. 핸드폰 게임을 했다가, 아무 의미 없이 TV를 보다가,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한다.

아들 (나레이션) :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사람들 사정도 생각 않고 규칙만 지키는 게 잘하는 걸까?

문득 마루로 향하는 아들. 마루에선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종종거리며 서 있다.

어머니 (걱정스러워하며) : 창현아, 아빠한테 연락 없었지?

아들 : 네, 없었어요.

어머니 : (불안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네. 아빠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한시간 전쯤에 돌아갔던데...

그 때 누가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난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란다.

어머니 : (눈을 커다랗게 뜨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 달려가서 문을 연다.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 났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다. 저 멀리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이윽고 소방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도 들린다.

아들 : 어디 불이 났나 봐요.

어머니 : 어느 쪽에?

아들 : 포장마차 있는 데...

아들, 대답을 하다 말고 뭔가가 생각난 듯 말을 멈춘다. 급하게 현관에 놓인 신발을 구겨신고 밖으로 뛰어나온다.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어머니 : 창현아!

아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간다.

#9 포장마차 길목

#3의 포장마차 길목으로 아들이 뛰어온다. 입구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둥글게 몰려있다. 웅성이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등 양상은 다양하다. 몰린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안절부절못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4 :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영식이 할아버지! 창현이 아빠!

아들, 그 쪽으로 뛰어간다. 시민 4가 아들을 알아보고 큰 목소리를 낸다.

시민 4 : 아이고 창현아, 창현아 어떡하냐. 너희 아빠가 큰일이 났어!

아들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 무슨 일이에요?

시민 : 글썸, 불이 펄펄 나고 연기가 솟는데 느이 아빠가 영식이 할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아들, 멍한 눈으로 검은 연기가 솟고 있는 화재현장을 본다. 그러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려 달리기 자세를 취한다. 시민 4가 아들

의 행동을 미리 눈치채고 잽싸게 허리를 끌어안는다.

시민 4 : 애가, 애가. 지금 뭐하려고 그래. 죽을라고 이러!

아들 (발버둥치며) : 그래도 아빠가 저기 있잖아요!

시민 4 : 암전히 기다려! 어린 것이 힘도 장사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도와줘봐요!

시민들 여럿이 달려들어 아들의 행동을 막는다. 아들은 있는 힘껏 버둥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쓴다. 그 때 현장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외친다.

시민 5 : 저기 사람 나온다!

일동 그 쪽을 돌아본다. 소방대원 둘이 영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 사람씩 부축하고 있다. 아들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뛰어간다.

아들 : 아빠!

아들은 빠르게 그 쪽으로 뛰어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아들 : 괜찮으세요?

아빠 : (숨을 몰아쉬며) 그래. 나보단 할아버지가 걱정이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눈을 감고 있다.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온 구급대원이 아버지에게 물병을 내밀며 통명스레 말한다.

구급대원 : 괜찮아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요 들어가길.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받은 물을 마시지 않고 품 안에서 재가 묻은 손수건을 꺼낸다. 물병 뚜껑을 따 손수건에 물을 묻힌 다음 할아버지의 까만 얼굴을 닦아주는 아버지. 화재현장에서 막 나온 아버지의 얼굴도 재로 얼룩덜룩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한다. 근처에서 다른 구급대원들이 영식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태우려 든다. 바빠 움직이는 구급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묻는다.

구급대원 : 이 사람 보호자 없어요?

아버지 : (선뜻 나선다) 제가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아버지 : 금방 집에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들 : 저도 같이 가요.

아버지 (타이르는 어조로) : 엄마가 걱정하신다. 암전히 기다리고 있어.

실려가는 영식이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도 댕크 구급차에 올라탄다. 아들 뒤에 선 채 멀어지는 구급차를 보고만 있다.

#10 안방

안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린다. 책을 읽는 소리.

아들 (나레이션)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화면이 아들의 모습을 비춘다. 안방에서 아들이 손때 묻은 목민심서를 집어 들고 책을 읽고 있다. 처음 읽는 거라 목소리가 어색하다. 아들은 목민심서의 몇 구절을 더 읽다가 책을 조심조심 탁자에 내려놓는다.

목민심서가 놓인 탁자 옆엔 팜플렛도 보인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팜플렛. 아버지 글씨체로 이것저것 필기가 되어 있다. 책을 내려놓은 아들, 목민심서와 팜플렛을 번갈아 보며 심란한 얼굴을 한다.

아들 (혼잣말로) 이게 다 뭐라고.

마루에서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

엄마 : 아들, 시간 됐다. 이제 가야지.

아들 : 가요.

아들, 책을 놓고 일어선다. 목민심서와 팜플렛이 다시 화면에 비친다.

#11 시상식장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어머니가 시상식장에 들어선다. 넓은 홀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아들과 어머니 옆으로 시민 10이 호들갑스럽게 다가온다.

시민 1 : 아이구 이게 누구야. 오늘의 주인공들이 아니여!

어머니 (미소를 지으며) : 세준이 어머니. 와 주셨네요.

시민 1 : 누가 상을 타는디 고렘 와야제.

시민 1, 회장 맨 앞에 놓인 현수막을 바라본다. 아들과 어머니도 나란히 그 방향을 본다. 세련된 꽃장식으로 장식된 현수막엔 '모

범공무원 표창' 이라 써여 있다.

시민 1 : 창현이 아빠 덕에 영식이 할아버지가 살았지.

어머니 : 요전번에 다리 아프다고 한 건 괜찮아지셨어요?

시민 1 : 고계 고거지 뭐. 글두 그쪽에서 준 약재 먹으니까 좀 나아.

시민 1,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몸을 굽히고 목소리를 낮춘다. 시민 1 (비밀 이야기를 하듯) : 내가 솔직히, 딱 하루만 일한 걸 가지고 잡도리한다고 창현 아빠 욕 엄청 하고 다녔는디 말여. 웬걸 그런 걸 갖다주면 어떡허? 사람 미워하지도 못하게 한다 니깐. 시민 1, 회장 안에 모인 사람을 휘 둘러보며 말한다.

시민 1 : 이 사람들이 다 창현 아빠 땀시 모인 거지? 사람이 영 부드러운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디, 융통성 없이 군 게 사람을 살렸네그러.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짓는다.

#12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고 있다. 아들은 선뜻 박수를 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다.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내빈들에게 아버지의 공적을 간단하게 알린다.

사회자 : 이춘석 씨께서는 1999년 공무원에 입직해 근 20년의 공직생활 동안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지난 달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솔선수범해 119에 화재의 진원지를 신고하고 인명 구조에 힘쓰셨으며...

축사가 끝나자 양복을 차려입은 국무총리가 아버지에게 상을 수여한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친다. 아들은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들 가운데 영식이 할아버지를 발견한다. 아들의 시선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할아버지 :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띠며 박수를 치고 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 마이크를 든 아버지가 단상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한다.

아버지 : 공직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리 큰 상을 받으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탱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랑스런 아들 현철이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단상에서 아들을 바라본다. 예고도 없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쑥스러운 표정을 한다.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다시 박수소리가 이어진다. 이번에는 아들도 박수를 친다. 사회자와 국무총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아버지는 겸양을 하며 웃는다.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 : (나레이션) 우리 아버지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노점상이라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도 가리지 않고 다 단속하신다. 난 아직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의 행동으로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다.

박수소리는 그치지 않고 한동안 이어진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며 연신 박수를 보내고 있다.

<끝>